

숨은그림찾기 < 70 >



찾아보세요! 팽이, 몽당연필, 칫솔, 송사리, 열대어, 바늘, 음표, 서툴룩, 펜촉

넌센스 퀴즈

비아그라의 출현으로 남자들이 얻는 이득은?
- 남자는 고생이 갑절, 이득을 얻는 건 오직 여자뿐이다.
새신랑과 안경 낀 사람의 공통점은?
- 벗으면 더듬는다.
흔들 때 쾌감, 쌀 때 허무함. 이게 뭐람?
- 고스톱
구멍이 커야 이기는 경기는? - 엿치기
남자들이 축구, 농구, 골프 같은 운동을 좋아하는 이유는?
- 본능적으로 넣는 걸 좋아한다.



지나주 정답

서툴룩, 다리미, 음표, 담배피이프, 병따개, 새집, 바늘, 종이배, 은행잎

그림 속에 숨겨진 사물들을 찾아보세요. 찾은 사물을 그림에 표시한 후 매주 화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정답자를 추첨, 상품권(2만원)을 드립니다.
▲보내실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당첨자: 김양선 <해남군 해남읍> 김정선 <고흥군 도양읍>

아하! 오늘이 바로 그날

26일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폭발 21주년

지난 1986년 4월26일 새벽, 구소련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 북부 지역인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는 인류 역사상 최악의 원전 사고다. 방사능 물질은 대기중으로 퍼져나갔고 토양과 지하수원 등 주변 환경은 심각하게 오염됐다. 주민 수십만명은 정들었던 터전을 '탈출'했고 여지껏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주민들도 많다.

오는 26일로 체르노빌 폭발 사고가 21주년이 된다.

그린피스는 이날을 20세기 역사에서 '전쟁을 제외한 가장 큰 재앙의 날'로 정하기도 했다.

누출된 방사능 물질은 1945년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폭의 350배.

1995년 발표된 유엔보고서에 따르면 체르노빌 사태로 인해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등 3개국에서 900만명의 주민들이 직간접으로 피해를 당했으며 최소한 80만명이 피폭유자라 분류됐다.

사고는 이날 새벽, 엔지니어의 조작미숙으로 원자로의 출력이 폭주하면서 화재가 발생했고 대량의 방사능 유출로 유럽 전역이 오염됐다.

강산이 바뀐다는 세월이 두 번이나 지났고 지난 2000년 체르노빌 원전은 폐쇄됐지만 비극은 끝나지 않았다. 여전히 진행형이다. 그 지역 아이들은 여전히 갑상선암·혈액암 등 각종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소련은 폭발 뒤 수십 시간이 지난 뒤에 대피령을 내리는 등 안이한 대처로 사고 피해를 키웠다.

피해 실상은 현재까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다. 당시 소련의 은폐와 방사능 피폭 영향이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탓이다.

지난 1986년 당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구체적이지 않다. 서방 소식통들은 방사능이 체르노빌에서 1천600km 떨어진 스칸디나비아 지역까지 누출됐으며 심각한 상황을 우려했지만 소련 관영 통신 타스는 사고난 이를 뒤인 28일에야 "우크라이나 공화국의 한 원자력 발전소에서 최근 원자로 파손사고가 발생, 수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다"는 수준의 보도를 했을 정도다.

당시 사고는 핵의 무서움을 실감할 수 있었다. 원전에 대한 철저한 안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지난 86년 폭발 사고로 폐허가 된 구소련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의 사고 당시 모습.

뉴스퀴즈

61. 정부와 주요 환경단체들이 22일 '스톱(S-TOP) 온난화, 무브(MOVE) 자전거, 어게인(A-GAIN) 재활용'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 날은 지난 1969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 버바라 해상 기름 유출 사고를 계기로 제정됐으며 올해로 37주년을 맞아 '지구촌 시민환경 축제'의 날로 자리잡았습니다.

이 날은 무슨날일까요?
① 지구의 날 ② 근로자의 날
③ 성년의 날 ④ 항토예비군의 날

참여 방법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삼성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드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보내실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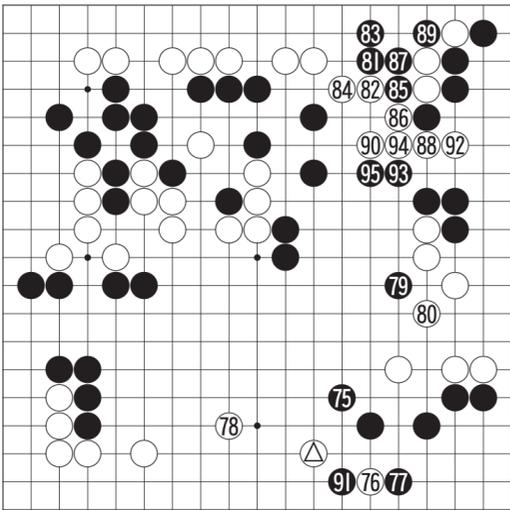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4월 25일(음 3월 9일 己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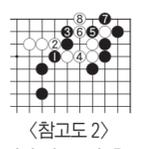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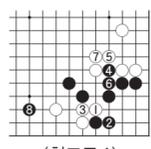
Table with 12 rows of zodiac signs and their corresponding fortune predictions for the day.

www.cafe.daum.net/sajoo114 ☎11-632-6121

Advertisement for DermaPlast skin care products, featuring a photo of a couple and text about skin treatment.



제4기 전지전도비 왕중왕전 청룡부 결승전



백 △가 마지막 큰 곳으로 이곳을 백이 차지함으로써 백이 포석에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장면이다. 흑 75로 머리를 내민 것은 거의 절대이며 백 76 때 흑 77로 바짝 조여막은 것이 좋은 수였다. 이때 백이 '참고도1'의 1로 짓히는 것은 흑 2로는 다음 4로 찔러넣는 수

내려서는 호수, 흑 83 6보(75~95)

백 온소진 3단 흑 이세돌 9단

가 선수로, 8로 협공을 당해 백이 곤란하게 된다. 이세돌 9단은 79를 선수해 우변 백 대마에 맞을 남긴 다음 속제이던 흑 81의 곳으로 쳐들어 갔다. 이곳은 백이 선수를 잡기위해 손을 뺐던 곳으로 이 정도의 피해는 감수해야만 된다. 흑 83으로 내려선 수가 좋은 수였다. 이 수로 84에 맞히는 것은 '참고도2'의 흑 1로 끊겨 백 8까지 거꾸로 흑 두집이 잡혀버린다. 흑 91과 백 92는 기세좋은 반발이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KFA 한국마사회

바둑소식

권감용 7단, 고주연 초단 제압

권감용 7단이 최근 한국기원 바둑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1기 지지옥션배 여류 대 시니어 연승최강전 6국에서 고주연 초단을 제압, 시니어팀에 2승째를 안겼다. 흑을 잡은 권감용 7단은 공격적인 행마로 주도권을 잡은 뒤 한차례 역전도 허용하지 않고 276수 끝에 흑 8집 반승을 이끌어냈다. 권 7단은 7국에서 여류팀 김수진 2단과 대국한다. 이 대회의 제한시간은 10분 30초 초읽기 3회다. 우승상금은 5천500만원이며 3연승할 경우 200만원의 연승상금이 주어진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굿모닝 잉글리쉬 <890>

Could you page him for me?
그분 좀 불러 주시겠어요?

A:I was supposed to meet John here, but I don't see him.
Could you page him for me?
B:I'd be glad to. wait a moment, please.
A:Thank you.
B:You're welcome.

A:저와 존은 여기서 만나기로 했는데, 보이지 않습니다. 방송으로 그를 찾아주시겠어요?
B:기꺼이 해 드리죠.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A:감사합니다.
B:천만에요.

Could you page him for me?
= could you call him on the intercom?
[응용] Could you help me find my son?
(제 아들 좀 찾아 주시겠어요?)
be supposed to ~ : ~하기로 되어 있다

<동아 외국어학원 제공>
www.donga.tv ☎ 222-6253

오하우우 니혼고 <890>

あっ、でもここに傷(きず)がついてるよ
앗, 하지만 여기에 흠집이 있어

A:デパートですてきなコヒカップ見(み)つけたから 買(か)ったの。かわいいでしょう。
B:うん、すてきなね。あっ、でもここに傷(きず)がついてるよ。
A:えっ、どこどこ?本當(ほんとう)だ。氣(き)づかなかったわ。
B:品物(しなもの)はよく見て買わないとね。

A:백화점에서 맛있는 커피 잔을 발견하여 샀어. 귀엽지?
B:응, 맛있네. 앗, 하지만 여기에 흠집이 있어.
A:옛, 어디어디? 정말이네. 몰랐어.
B:물건은 잘 보고 사지 않으면 -.

コヒカップ: 커피 잔
見(み)つける: 발견하다, 찾다
傷(きず)がつく: 상처가 나다
氣(き)づく: 깨닫다, 눈치채다

<광주 글로벌 외국어학원 제공>
http://kglobal.wo.to ☎ 228-2545

니하오 쑹구위 <81>

我比你差多了
나는 너와 많이 비교 될거야

A:我要去游泳了, 你去吗?
Wó yào qù yóu yǒng le, nǐ qù ma?
워 야오 쑹여우 용러, 니 퀴 마?
B:去, 不过我游得不太好, 我比你差多了。
Qù, bùguò wǒ yóu de bùtài hào, wǒ bǐ nǐ chà duō le.
취, 부구워 워 여우 더 부타이 하오, 워 비니 차 푸워 러.
A:你什么时候开始学习游泳的?
Nǐ shénmeshíhòu kāishǐ xuéxí yóu yǒng de?
니 셴머시허우 카이스 쉬에시 여우 용 러?
B:时间不长, 去年开始的。
Shíjiān bù cháng, qùnián kāishǐ de.
스피엔 추 창양, 취 니엔 카이스 더.

A: 나는 수영하러 갈 거야. 너는 가니?
B: 갈 거야, 그런데 너 수영을 잘 못해, 너 보다 많이 될 거야.
A: 너는 언제 수영을 배우기 시작했니?
B: 오래되지 않았어, 작년에서 시작했어.
比... 差多了 [bǐ...chāduōle] ~보다 차이가 크다
游泳 [yóu yǒng] 수영하다
不过 [bùguò] 그런데, 그러나

<호남대학교 공자아카데미>
☎ 3838-868

한자 이야기 <507>

靑史(청사)
푸를 청, 역사사

靑史(靑史)는 '푸른 역사'라는 말이지만, 보통 '역사'나 '기록'의 뜻으로 사용한다. 이것은 종이와 발명되기 전의 시대에 푸른 대검질에 칠(漆)로 글을 기록하였기 때문이다.

종이가 출현하기 전에는 비단이나 대나무를 사용하여 문자를 기록하였다. 비단에 기록한 문서를 백서(帛書)라고 하고, 대나무를 일정한 너비로 쪼개어 불에 구워 푸른빛과 기름을 얹은 조각에 기록한 것을 죽간(竹簡)이라고 한다. 불에 굽지 않으면 표면이 미끄러워 글씨를 쓸 수 없기 때문인데, 이것을 살청(殺靑) 또는 한청(汗靑)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만들어진 죽간을 여러 개 묶어 가죽 끈으로 꿰어 사용한 것이 책(冊)이다. 책에는 주로 국가의 중대사인 역사를 기록하였는데 푸른색을 띠고 있기 때문에靑史(靑史)라고 불렀던 것이다.

당나라 시인 이백(李白)은 '사호(四皓)의 묘를 지나며'라는 시에서 "靑史에 그 이름이 전한다"라고 읊었으며, 백거이(白居易)도 '호가행(浩歌行)'에서 "靑史에 빛나는 공명(功名)은 어느 곳에 있는가(靑史功名何處在)"라 하여靑史를 역사의 뜻으로 사용하였다.

<한예원(韓睿媛)>
조선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 230-6505